

염상섭 초기 문학에 나타난 근대체험과 가족 이데올로기

이 덕 화*

1. 들어가는 말
2. 자기 부정의 미학
3. 부르주아 민족주의로서의 욕망
4. 가부장적 시혜의 원리
5. 나가는 말

* 평택대 국문과 교수

국문초록

염상섭 작품에서 나타나는 의식의 모순은 첫 번째로 자기동일시와 비동일시의 형태로 나타난다. 작품 곳곳에서 드러나는 나-가족-민족이라는 자기 동일시는 또 한편으로는 근대화된 일본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선망과 부러움으로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열등한 미개한 한국인을 타인으로 여긴다.

'근대화된 한국'에 대한 열망과 욕망에 의해서 나타난 개인의 주체 정립과 나-가족-민족이라는 자기 동일시는 개인주의와 가부장적 의식이라는 대립적인 관계임에도 동일선상에서 서술되고 있다. 이는 작품의 주인공들이 의식의 간극을 통해서 나타난다. 작품의 주인공들은 개인의 주체 정립을 위해 만들어진 인물이면서도, 경제적인 의존성을 보여주는 비주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

염상섭의 문학에 드러난 민족주의는 '빚줄'로 연계된 전통적 구습인 가족제도에 의한 인간관계를 타파하고, 돈의 흐름을 사회화함으로써 근대 국가의 기본을 마련하는 부르주아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또 가족의 번영과 영광을 위해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전통 가족주의는 반대하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과 희생으로 가족을 돌보는 부르주아의 가족관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 가족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잘못된 돈의 흐름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돈의 출처를 도외시함으로써 다시 가부장적 원리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염상섭 초기 문학에 나타나는 의식의 모순은 피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정치적인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한 어쩔 수 없는 한계일 것이다. 국가의 핵심적인 모순은 꺾호로 하고 주변적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일제 하 지식인의 슬픈 모순이기도 하다.

염상섭이 근대의 가치라고 상정한 개성의 발현에 의한 주체 확립의 문제는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핵심어 : 근대, 개성, 민족주의, 가족 이데올로기, 주체 확립.

1. 들어가는 말

일제 하 1910년대는 근대화에 대한 추상적인 의식만 있을 뿐 아직 현실적인 대안을 낼 수 없었다고 한다면, 1920년대는 일부 일본 유학생들이 귀국, 사회적, 문화적인 역학관계가 변화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근대화에 대한 담론이 생산되기 시작한다. 그 중 염상섭의 「개성과 예술」 역시 근대화의 담론으로 1920년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논문이다.

염상섭의 초기 문학은 '자아의 각성과 개성의 발견'으로 축약할 수 있을 정도로 작품과 평론에서 '자아의 각성'과 '개성의 발견'이라는 용어는 빠질 수 없는 핵심용어로 떠오른다. 「암야」(闇夜)나 「표본실의 청개구리」에서는 자아의 인식 과정을 소설로 형상화했다면, 『만세전』 이후의 소설에서는 개성이라는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염상섭의 작품에서 '자아의 각성'과 '개성의 발견'은 민족적인 현실과 변증법적 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형태의 소설적 형태로 나타난다. 개성의 문제를 '민족적 개성'으로 확대하면서 민족문학으로 발전하고, 개성의 문제를 남녀의 순수한 인생에 대한 열정으로 확대하면서 연애소설로 발전한다.

염상섭은 근대화의 핵심을 '자아의 각성과 개성의 발견'으로 인식하면서 민족현실에 기반한 민족문학 계열의 작품과 그 당시의 많은 문제를 제기했던 신여성을 소재로 한 여성소설 「祭夜」, 「해바라기」, 「너희는 무엇을 얻었느냐」, 「모란꽃 필 때」, 「사랑과 죄」, 「남충서」 등을 썼다. 신여성을 다룬 소설조차도 그 당대의 신여성의 공리주의적 연애와 신여성의 허영심을 비판, 여성들의 연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 민족의 미래와 민족의 개성을 고양시킬 의도로 쓰여진 것이었기 때문에 민족문학의 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 현실을 바탕으로 한 민족문학 계열의 소설이나

신여성을 소재로 한 여성소설은 대부분 자기부정의 미학을 보여준다.

이것은 염상섭의 근대화의 체험이 그 당시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인 자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근대화를 통해 바라 본 차이, 조선의 열등한 것을 비판한 것이기 때문에, 불쾌감을 가지고 한국을 대상화하거나 한국을 타자로서 확인하고 인식하고 있다. 신여성을 소재로 한 소설 속의 신여성 역시 자아의 실현을 위해 매진하는 일본여성, 이를테면 「만세전」의 「정자」와 같은 여성과 비교 대상으로 타자화된다.

염상섭의 이런 자기부정의 미학은 개성의 발현을 중시하는 근대주의자인 염상섭이 그렇게 타협해서는 안된다고 부정했던¹⁾ 우리나라 전통인 가족주의 의식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염상섭이 「만세전」에서 당대의 일제 하 현실을 ‘무덤’ 혹은 ‘묘지’로 표현했음에도, 염상섭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와 ‘사회’와 ‘민족’을 동일시하는 가족 의식이 부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신여성을 소재로 한 많은 소설들, 그 당시 실제 인물, 실제 사건을 소설 소재로 삼고도 염상섭이 그렇게 떳떳할 수 있었던 것은²⁾ ‘훼손된 누이³⁾’들에 대한 염상섭의 부성(父性)애적 사랑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⁴⁾

염상섭이 지향하려고 하는 근대의식과 염상섭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가부장적 의식 사이의 틈은 결국 작품에서도 이중체계로 드러난다.

1) 염상섭, 「地上善을 爲하야」, 『염상섭전집 12』(민음사, 1987), p.45.

2) 염상섭이 신여성의 소재로 한 작품이 계속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당대 독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권명아, 『가족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책세상, 2000), p.59. 이 책에서 ‘훼손된 누이’는 전쟁 후 생활고로 창녀로 전락한 누이의 이미지를 말한다. 염상섭 문학에서 나타나는 ‘훼손된 누이’의 이미지는 주체 확립의 명분 아래, 자유 연애로 타락하고, 허염심으로 삶의 진지성을 상실한 신여성을 말한다.

4) 그 당시의 신여성을 소재로 한 소설의 등장인물 중, 염상섭과 친한 여성도 있었음에도 소설 발표 후에도 계속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만세전」에서 식민지 지식인으로 일제하 현실을 인식하려는 주체와 아직도 철없는 책상도령으로서 유희적 기분에 사로잡혀 있는 주체로 분열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또 아버지가 가족들을 돌보아야 하고, 남성이 여성을 돌보아야 한다는 가부장적 의식에 의해 자신 외의 사람들을 타자로서 대상화하기도 하지만 자신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신여성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 새로운 시대사조인 신여성의 여성해방 사상에 공감하면서도 신여성의 허영심과 공리주의적 연애를 비판한다. 신여성 역시 타자로서 대상화하기도 하지만 자신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이것은 첫째는 염상섭의 근대체험이 위에서 서술했듯이 자기 자신 혹은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자각에서 오는 것이 아닌,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 일제하 한국의 현실을 비판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염상섭의 근대체험이 자발적인 것이 아닌, 피식민지의 열등 지식인으로서 강요된⁵⁾ 것이었기 때문이다.

2. 자기 부정의 미학

염상섭은 1909년 관립 사범보통학교에서 조선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데 불만을 품어 오던 중, 일본의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방문하는 날 전체 학생을 동원하면서 조선 황제의 거행 때는 반(班)대표만 보낸 것에 항의 자퇴한다. 그 후 보성중학교에 전학하여 2학년 1학기 까지 다닌다. 1912년 한일합방 직후 독일, 도쿄 아오야마(青山)학원에

5) 「암야」나 「표본실의 청개구리」에서 나타나는 불안과 강박관념은 이를 반증한다.

편입, 1915년 3학년 수료, 이때 교회 찬양대원과 침례교 세례를 받는다. 교토토부립(京都 府立) 제2중학교 전학, 1918년 3월 졸업한다. 외국인으로는 유일한 학생이었다. 1918년 게이오(慶應)대학 예과에 입학한다. 한 학기만 다니다 병으로 자퇴한다. 학비 마련을 위해 작은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을 한다. 1919년 3월19일 오오사카에서 국내 3.1운동 소식을 듣고 오오사카 천왕사공원에서 유학생을 규합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노동자대표 명의로 거사하기로 했으나, 3월18일 피검된다. 5개월간 미결수로 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요코하마 복음인쇄소 직원으로 취직한다. 1920년 24세로 귀국, 동아일보 창간과 더불어 정치부 기자로 근무한다. 그 이후 신문사를 전전하며 기자생과 함께 창작활동도 열심히 한다.⁶⁾

위의 염상섭의 개인의 이력과 문학 담론과의 상호연관 속에서 염상섭의 근대체험을 추출해보자. 염상섭은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청년 시절의 8년을 일본에서 보냈다. 그것도 대부분의 청년기를 일본에서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을 가기 전에 관념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근대 의식을 일본 속에서 실제 체험했다고 할 수 있다.

「암야」와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염상섭이 일제하 한국 현실을 체험하기 직전의 자기 실존에 대한 고민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글이다.⁷⁾

「암야」에서는 기존 관습적 제도적 관념에 대한 반발과 친구들의 속물근성이나 자기 자신의 관념적 허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식과 돌파

6) 권영민 편, 『염상섭 문학연구』(민음사, 1987), pp.465~466.

7)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1921년, 귀국 다음해 『개벽』 8~10월호에 연재했지만, 「암야」는 1919년 10월 일본에서 탈고 했으나 1921년 10월에 발표된다. 두 작품을 쓸 시기에는 아직 염상섭의 장기간의 일본 체류에 비해 짧은 체류기간으로 일제하 한국 현실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웠다.

구 없는 현실에 대한 불안과 우울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주인공을 더욱더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은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한 유희적 태도이다. 그것은 삶에 대한 성실성과 진지성의 결여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주인공이 아리시마 다께로(有島武郎)의 「출생의 苦惱」를 읽고는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다.⁸⁾ 이 작품을 통해서 주인공은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 매진하는 삶의 진지성과 성실성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자기반성에 이르게 된다. 이로 인해 삶에 대한 빛을 발견하게 되었음을 다음 서술로 알 수 있다.

머리 위에 길이내리운 夜光珠 같은 못별의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金銀의 굳센실로 이 全身을 에워매우고, 永遠의 앞에 무릎을 꿇고 永遠이시여⁹⁾

위의 인용문에서 주인공에게 ‘永遠’은 영원히 자신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근대적 삶의 가치와 같은 것이다. 질뚝발이가 연을 창공으로 날리지만, 번번히 땅에 처박히는 연과 같이, 날고 싶지만 날 수 없는 피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앞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기도문이다. 그러면 삶에 대한 새로운 빛으로서의 근대적 가치는 무엇일까. 말할 것도 없이 개성의 표현이다.

염상섭이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쓴 다음 바로 이어서 쓴 「個性과 藝術」¹⁰⁾을 한번 보자.

偉大한 個性의 表現만이, 모든 理想과 價値의 本體 즉 眞, 善, 美로 表徵

8) 「출생의 고뇌」의 초점인물 기모또의 너무 집이 가난해서 동경유학을 포기하고 가업으로서의 어부를 하면서 그림에 전념하겠다는 서술을 통해서, 주인공은 자신과 친구들의 유희적 태도에 비해 삶의 엄숙함과 존귀함을 느꼈으리라 생각된다. 이보영, 『난세의 문학』(예림기획, 2001), p.59.

9) 염상섭, 『염상섭 전집 7』, p.57.

10) 염상섭, 『개벽』, 1922.4.

되는 바 偉大하고 永遠한 事業이 人類에게 向하여 成就케 하는 것이라 함
이라.¹¹⁾

과연 불같은 生命이 不絶히 燃燒하는 焦點에서, 번쩍이며 뛰도는 靈魂
그 自身을 불어 넣은 것이 곧 藝術의 本質이어야 하겠고 우리는 거기에서
만 眞正한 美를 算出할 수 있으며, 永遠한 生命이 簡單없이 躍動하고 流露
함을 볼 수 있다. 그러면 燃燒하는 生命自體가 무엇이며, 그 焦點에서 反撥
하는 靈魂은 무엇인가. 두 말할 것없이 이것이 곧 個性의 活躍이며 表現이
다.¹²⁾

위의 두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개성의 표현은 곧 생명의
발현이며, 영혼 그 자체이다. 혼신의 힘을 불어넣는 것 그게 바로 영원
한 생명이며 이게 또한 예술의 본질이며 진정한 미를 산출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자신의 혼신의 힘을 기울여 매진할 수 있는, 즉 자신의 생
명을 연소하는 삶 자체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리시마 다케로의
「출생의 고뇌」를 통하여 염상섭이 만난 것은 바로 이 삶의 진정성과
맥이 닿아 있는 것이다. 「표본실의 청개구리」에서 친구들과는 달리 주
인공이 진지성을 가지고 김창억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김창억
의 쌍기를 통하여 보여준 사기 신님의 실천 역시 곧 삶의 진정성이라
는 맥락과 닿아있기 때문이다.

「만세전」 역시 삶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대목은 이인화가 한때 잠시
나마 호감을 가졌던 일본 술집 여자 정자를 통해서이다. 정자는 술집
여자임에도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학을 진학
하는 진지성마저 가지고 있다. 이에 감동한 인화는 자신의 학비의 일
부를 떼어내어 정자에게 보낸다. 위에 거론된 작품에 나타난 삶의 진

11) 『염상섭 전집 12』, p.38.

12) 『염상섭 전집 12』, p.39.

정성은 김창억이라는 광인을 제외하면 일본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것은 염상섭의 무의식 속에 근대화된 일본과 미개지인 한국이라는 도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세전」에서의 이인화가 부인의 죽음을 앞두고 여행 과정을 통하여 일제하의 현실과 그 당대의 한국 사람을 '묘지' 혹은 '무덤'으로 인식하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에서 이인화의 의식은 나-가족-민족과의 자기 동일시를 통해, 민족 현실을 열등하다고 부정하는 한편 자신을 분리, 근대화된 일본인과 대등한 관계로 상정함으로써 '무덤' 같은 한국 현실에서 살 수 없는 인물로 상반된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는 일본의 근대화된 문화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 마지막 부분에 '무덤'과 같은 한국을 떠나 마치 고향 같은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자신의 살 곳은 미개한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 작품에서 일본은 근대적 삶을 제공해 주는 본원적인 것으로 의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내가 아닌 타자를 보는 태도는 언제나 이원적이다. 하나는 타자에게 동화하는 긍정적인 시각과 다른 하나는 내가 아닌 그 무엇을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그런데 「만세전」에서는 한국 현실과 한국 국민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본과 일본 사람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것은 한국의 기존 관습적 제도적 관념에 대해서 역사적인 발전 과정이나 한국 민족성 등에 대한 천착없이 한국 사람의 속물근성, 지식인들의 관념적 허위, 삶의 진지성의 결여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들어 한국을 무덤으로 인식한다. 이는 문화적 제국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위의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한국의 기존 관습적 제도적 관념에 대한 반발인데, 이것은 세 작품에서 대체로 관혼상제 등의 의식을 통하여 드러난다. 「암야」에서는 주인공에게 결혼을 앞둔 사

촌형집에 잠시 다녀오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결국 무시함으로써, 또 삶의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자신에게 삶을 의탁하려는 약혼녀에게 수치와 모욕을 느끼는 주인공을 통해, 기존 관습의 기초가 되는 결혼제도 자체에 반발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만세전」에서 보여준 주인공 이인화의 죽음을 앞에 둔 아내에 대한 냉정한 태도는 아내로 상징되는 기존 관습에 대한 반발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나라를 상실했다는 대명제 앞에, 새로운 삶의 방향 제시를 하기 위한 자기부정의 미학을 통해 나온 것이다. 망국민에 대한, 망국 현실에 대한 이러한 자기부정은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체제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입장에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새로운 근대적 가치를 향해 어쩔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염상섭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자기 부정은 대부분의 청년기를 일본에서 보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일본 유학은 두 가지의 상반된 심리, 일본에 대한 선망과 부러움, 또 하나는 적개심이다. 이 두 가지가 적절히 그 당대의 현실을 통해 잘 드러난 작품이 「만세전」이다.

이 작품을 통해 염상섭은 식민주의자 일본의 근대 논리가 투영된 근대적 가치에 한국의 과거를 왜곡, 파괴함으로써 자기 부정이 가능했던 것이다. 즉 일본에서 공부했고, 일본을 통하여 근대를 경험했던 염상섭의 의식은 일본 식민주의자의 담론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인화는 일제 식민지로서의 한국에 대한 미묘한 감정과 일본을 닮지 않은 전근대적인 한국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 사이에서 갈등한다.

조선 사람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보여 준 것은 없으나 다만 날만 세면 자릿 속에서부터 담배를 피워문다는 것, 아침부터 술집이 번창한다는 것, 부모를 쳐들어서 내가 네 애비니, 네가 내 손자니 하며 농지거

리로 세월을 보낸다는 것……그 대신에 과학 지식이라고는 소뎡뚜껑이 무거워야 밥이 잘 무른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것을 외국 사람에게 실물로 교육을 하였다든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들이 조선에 오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경멸할 수 있는 사실을 골고루 보고 많이 안다는 의미밖에 아니 되는 것이다.¹³⁾

위의 인용문에서 보여 준 것처럼 이인화의 시선은 바로 외국인, 즉 일본인 아니면 서양인의 시선이다. 이것은 식민주의자 일본인의 시선에 의해서 보여지는 일제 하 한국을 폄하함으로써 우월한 일본과 지식인 작가 혹은 소설의 화자와의 동일시를 통해 자신과 일본과의 차이를 줄여 타자성을 줄이자는 것이다. 자기 외의 다른 일제 하의 한국 사람들을 타자로 만듦으로서 익숙한 피해자로서의 처지 뿐아니라 가해자의 처지를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¹⁴⁾ 일본을 모든 가치와 규범의 중심에 두고 한국은 문화적으로 열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일본 것을 내면화하는 자기를 부정하는 과정이다.

3. 부르주아 민족주의로서의 욕망

염상섭의 문학에 나타난 자기부정의 미학이 염상섭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가치로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바로 그 부정의 미학 안에 민족 독립, 혹은 민족 해방에 대한 소망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염상섭의 개성의 발현은 문학작품 속에서 민족의식의 실천을 통해서 드러난다. 염상섭의 개성론은 개인의 자아 발견으로부터 민족적 개성으

13) 염상섭, 『만세전』, 『한국문학전집 3』(학원출판공사, 1991), p.314.

14) 이옥순,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푸른역사, 2003), pp.40~45.

로 확대된다.

그러면 나의 이른바 地上善은 무엇인가? 他에 없으니 以上에 累累히 陳述한 바, 自我의 完成 自我의 實現이 곧 이것이다. 함으로 어떠한 行爲든지 自己의 靈魂의 生長慾과 擴充慾을 滿足케 할 수있으면 그것은 곧 善이다.¹⁵⁾

깨닫고도 스스로 속이는 者들아! 眞正한 자아주의를 誤解하여, 淺慮劣劣한 利己主義라 譏毀하지 말라. 眞正한 自我主義야 말로 자기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民族을 살리우고, 人類를 살리운다.¹⁶⁾

위의 인용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아의 완성이며 자아의 실현인, 진정한 자아주의야 말로 바로 민족을 살리고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다. 진정한 자아주의에 도달하기 전에 자기 혁명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권위에도, 어떠한 우상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할 때, 자기에 대한 자각, 자아 실현을 위한 삶의 지표가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염상섭이 「암야」나 「표본실의 청개구리」에서 보여준 우울과 불안은 바로 나라를 상실한 망국민의 백성이라는 자각 때문이다. 나라를 상실한 망국민의 백성의 한사람으로 삶의 지표를 세운다는 것은 「암야」에서 절름발이 소년이 창공에 연을 아무리 날리려 해도, 도로 땅에 처박히는 연과 같은 것이다. 전체주의적인 억압 앞에서 피식민지 지식인의 모든 행위는 억압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억압 속에서 삶의 지표를 찾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절름발이가 연을 창공에 띄우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여기에 염상섭은 ‘개성의 발견’이라는 개성론을 들고 나선 것이다.

15) 염상섭, 「地上善을 위하여」, 『전집 12』, p.56.

16) 위의 글, p.57.

염상섭의 개성론은 정치적 행위가 억압된 일제 하의 현실에서 민족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돌파구라고 할 수 있다. 염상섭은 개인의 자각으로 나아가기 전에 자기의 정체성을 응시할만치 자각있는 사람은 권위에 대한 부정, 우상의 타파, 초자연적인 일체를 물리치고 있는 그 대로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¹⁷⁾ 이것은 과거에서 개체는 전체에 예속된 한 개인이었지만, 근대의 개인주의에서는 개체의 존엄을 존중한다는 것은, 전체를 존중하는 이상이라는 것이다.

「암야」나 「표본실의 청개구리」에서 자기 응시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그렸다면, 「만세전」에 와서는 과거 권위에 대한 부정, 우상의 타파를 통해서 자기 부정의 미학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과거의 유습인 가족 제도가 만들어내는 왜곡된 인물을 통하여 드러난다. 일제의 식민지 교육에 협력하면서 재물 욕심이 많은 형과 가부장적 의식이 완강하면서 총독부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경제적 도움 속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책상도령님의 유치한 기분에 도취되어 있는 주인공 역시 조선의 가족제도를 비판하고 현실을 부정하지만, 그 사회의 과거의 유습에 의해서 창조된 인물이다.

「만세전」에서 전통적 가족제도에 배태된 왜곡된 인물유형을 통해 가족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다고 한다면, 「삼대」에서는 가족 제도로 인해 배태되는 가족간의 갈등과 반목을 통하여 제시된다. 조의관이 가족의 번영을 위해 맺고 있는 식민지 통치세력과의 유대관계나 조상훈이 보여주는 재산을 둘러싸고 벌이는 암투나 도덕적 타락은 전통적 가족 관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이미지이다. 조의관이 첩을 들여 아들을 더 낳고 싶어하는 욕망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고 조

17) 『염상섭 전집 12』, p.34.

의관의 가문은 결국 몰락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에 조덕기는 할아버지가 제의한 '사당지기'로서의 역할을 달가워하지 않는 할아버지 세대가 집착하는 가문의식에서는 벗어난 인물이다.

덕기가 가족적인 유대관계보다는 병화와 필순이를 중심으로 한 민족독립운동의 거점이 되는 '산해진'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 역시 가족 관계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전략일 수 있다. 덕기가 '산해진'의 사람들, 필순이의 가족, 병화, 경애 등을 성심 성의껏 도움을 주는 것과 일본 통치 세력과의 갈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당당하는 것 역시, 지금껏 가문의 영광과 번영을 위해서만 사용되었던 돈의 사용과 인간관계를 사회화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주체인 덕기를 새로운 인물형으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즉 덕기는 국가나 민족 관념이 부족한 조의관이나 윤리적 결여를 보여주는 조상훈, 돈과 가족으로 유리되어 덕기에게 기생하는 병화와는 다른 작가의 이념적 욕망이 투영된 인물이다.¹⁸⁾ 「삼대」에서는 염상섭의 개성주의와 민족주의가 통합된 이상주의적 인물인 덕기를 통해서 전체를 통합하는 개인주의 민족주의를 나타낸다.

덕기는 병화가 자신의 사회주의적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가족과의 결별까지 감행하는 병화의 용기에 감탄하면서, 경제적 뒷받침이 없는 사회주의적 실천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병화와 흥경애 관계를 통해서 보여준다. 즉 병화가 흥경애를 사랑하면서도 그녀의 허영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제적 무능력으로 유희적 태도에 머무르는 것처럼, 또 경제적 뒷받침이 없는 사회주의 운동도 결국 관념적 유희에 지나지 않음을 은연 중 덕기의 돈의 위력을 부각시킴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드러낸다. 덕기보다 더 가족적 유대감을 가지는 필순이에게조차 병화는

18) 김병구, 「염상섭 문학의 탈식민성」, 『현대소설연구』 18집(2003.6), p.191.

‘결혼식에 같이 동반할 정도의 남자’ 정도로 비하되고, 동지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장훈 패거리에 의해서도 ‘부랑자’ 혹은 ‘기분적 테러리스트’로 부정적으로 이미지화된다.

염상섭은 사회주의자나 자유연애 주창자를 등궤에 올려 놓고 비판하는데, 사회주의자나 자유연애 주창자는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상식도 절제도 없고 어떤 책임감도 없는 무모한 행동을 하는 자들로 비판한다.¹⁹⁾ 병화와 조상훈에 대한 비판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부정적으로 이미지화된다.

이는 작가 염상섭의 욕망이 덕기를 통하여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즉 사회주의 민족주의보다, 부르조아 민족주의에 더 강한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덕기는 무산운동에 대해 냉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 일선에 나가 싸울 수도 없기 때문에, 옆에서 도우는 보조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싶은 인물이다. 무산운동에 대한 자기 신념을 가진 인물은 아니나 무산운동이 곧 민족독립운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도우는 것일 뿐이다. 또 무산운동에 필요한 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무산자의 전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공장 직공으로 일하고 있는 필순이에 대한 호감도 필순이가 무산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필순이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의 딸이었기 때문에 호감을 가질 뿐이다.

덕기를 통하여 드러나는 염상섭의 욕망은 부르조아 민족주의로서, ‘핏줄’로 연계되는 전통적 구습인 가족제도에 의한 인간관계를 타파하고, 돈의 흐름을 사회화함으로써 근대 국가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전망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염상섭이 그렇게 중시하는 ‘돈’은 염상섭이 비판하고 있는 ‘가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19) 양문규, 「식민지 자본주의 하 민중 삶의 현실과 운명」, 『한국 근대소설의 현실인식과 역사』(소명출판, 2002), pp.122.

이다. 여기서 근대주의자 염상섭의 모순이 발생한다.

4. 가부장적 시혜의 원리

「만세전」에서 이인화가 '가족'과 '민족'을 자기 동일시하는 데는 가부장적 의식이 내면화되어 있다. 가부장적 의식에 의한 자기 동일시는 타인에 대한 '나'의 확대 개념으로서 가족이나 민족이 잘 될 때 나도 잘 될 수 있다는 의식이다. 이인화가 일제 하 민족적 상황을 '묘지'나 '무덤'으로 묘사한 것은 망국민의 지식인으로 민족적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자기 동일시를 통해 나타나는 자신 속에도 내재해 있는 익숙한 것에 대한 불쾌감이다. 나라의 상실은 나 속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고, 나 속에 익숙한 것들은 극복 대상으로 타자화된다. 이것은 전통적 가족제도에 대한 부정으로 드러나고, 개화파 지식인에 대한 부정, 신여성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진다.

염상섭이 「암야」나 「표본실의 청개구리」에서 주인공 친구들의 유희적 태도나, 「만세전」에서의 이인화의 아내에 대한 냉정한 태도, 「삼대」에서 병화의 삶에 대한 유희적 태도는 전통적 가족제도로 인한 가장의 절대적 권위에서 오는 병폐로 서사화된 것이다. 또한 이인화 형의 축첩 행위나 아내가 죽은 후 이인화가 아들을 친척에게 양자로 주는 것은 모두 부권적 가부장적 사회의 부정이면서 그 사회가 만들어내는 부작용이다. 이런 서사를 통해 염상섭은 전제적인 아버지를 부정하고 이인화라는 아들을 근대적 주체로 내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부권적 아버지의 권위에 짓눌린 아들은 자기 부정 논리에 의해서 '아비'도 아들도 부정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고 싶은 것이다.

염상섭이 「만세전」에서 보여주는 이인화의 패륜아적 기질은 가족제도에 의해 결박된 자아에서 해방된 자아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기획한 것이다. 염상섭은 개성의 발현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가장의 권위에 의해서 굴종하는 가족들의 노예적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가족제도의 폐습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²⁰⁾

이인화의 사촌형이 40년 동안이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인화의 집에서 살아 온 것도 종가의 장남이기 때문이다. 한편 또 이인화는 봉건적이고 친일적인 아버지와 형을 다 비판하지만, 이인화가 아내와 아들을 맡기고 유학할 수 있었던 것은 봉건체적 가족 제도 덕택이다. 그는 집안에서 받은 유학비를 가지고 정자에게 선물비로 쓴다든가, 정자의 학비를 대어주는 의식없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인화는 전통결혼으로 인한 희생자이면서, 전통 가족제도의 수혜자이다.

「삼대」에서 보여주는 가족구조 역시 전통적 가족구조 안에서, 권위적 가부장의 절대적인 위치와 개화기 지식인의 무책임성과 타락상 등을 보여준다. 조의관의 죽음도 결국 재산을 둘러싸고 일어난 음모로 인한 것이었다. 이 모든 가족간의 반목과 질시로 인한 가정의 파탄은 권위적 가부장제에 의해서 일어난 파탄이다.

「삼대」에서 ‘돈’에 의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나타나는 조의관은 봉건적 권위에 의해서, 집안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늙으막에 아들을 하나 더 보겠다고 첩까지 들여놓은 봉건체적 가장이다. 그의 아들 조상훈은 개화파로 아버지 조의관의 족보 정리를 반대하다, 조상도 모르는 놈으로 눈밖에 나 집에서 쫓겨난 인물이다.

조상훈은 아버지의 절대적 권위에 눌러 삶의 파탄자가 되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을 뿐만 아니

20) 염상섭, 「地上善을 위하여」, 앞의 책, p.48.

라, 주체확립도 하지 못한 권위적 가족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이다. 조상훈은 결국 아버지 조의관이 자신의 아들 덕기에게 넘기고 간 대부분의 유산을 뺏기 위해 아버지 조의관의 첩 수원택과 협잡하다 위조문서가 발각되어 감옥으로 가게된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조상훈을 통해서 개화파 지식인의 무책임성과 진정성의 결여를 가장 비판하고 있다. 그는 개화파 지식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자처하지만 사이비 기독교인이다. 자식인 덕기에게나 아내에게조차 권위를 잃어버리고, 지아비의 도리나 아버지의 도리를 방임한 철저한 자유주의와 방임주의를 취한다. 이것은 조상훈을 통해 개화파 지식인이 겉치레만 번듯한, 독립운동 가족을 도운다는 명분만을 내세우고, 겉치레 뿐인 기독교나 신여성들을 쫓아다니는 사이비 지식인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일에 있어서나 가족관계에서조차 진정성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신여성으로 등장하는 홍정애나 김의경 역시 비판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나 조의관은 비록 봉건적 의식에 의한 절대적 권위를 보여주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의식과 관념적 허위나 허영을 찾아 볼 수 없다. 조덕기는 조의관에 동조하지만 또 그가 주장하는 가정의 번영과 영광을 지키기 위한 '사당지기'로서의 역할에는 반대한다.

조덕기는 돈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민족의 번영에 이바지하고, 인간관계도 폐쇄적인 가족관계가 아니라 '산해진'으로 상징되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가짐으로 좀 더 근대화된 사회적 의식을 정립하려한다. 덕기를 통해 아내나 필순이와의 관계에서도 대화적인 관계를 통해 가족의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염상섭은 조덕기를 통해 부르조아 사회에서 지향하는 부부의 동등한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는 가부장적 가족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완전한 부르조아 가족보다는 가부장적 시혜의 원리에 의해서 가족과 이웃, 나아

가서는 민족까지도 돌보는 권위적 가장의 모습이 한 가족에서 전 사회로 확대되는 가족 개념이다. 조덕기를 통하여 나타나는 염상섭의 가족 의식은 가족 중심주의에는 찬성하나, 과거의 권위적 가부장제는 반대한다.²¹⁾

그러나 「만세전」 「삼대」에서 보여주는 절대적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임에도 불구하고, 모순점을 보여주고 있다. 「만세전」에서 이인화의 아내는 가부장적 폐습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부장적 폐습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정자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개인 주체 확립이라고 하는 삶의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해서 이인화가 자신의 학비 일부를 떼어내어 정자에게 보냄은 그 돈이 '아내'에 대한 희생을 바탕으로 생긴 돈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이인화는 결국 인간에 대한 호의를 가부장적 시혜의 원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 당시 가부장적 가장은 자식을 핏줄을 잇는 매개자로 상징, 전통적 혼례를 부추긴다. 그것은 아들이 유학을 한다 해도, 잠시 방학 동안 아내와의 접촉으로 자식 생산이 가능하고 아들 대신 며느리로 하여금 부모 봉양과 핏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담보로 가부장적 가장은 자식에게 유학비를 보내주었다. 이는 그 당시 문학 작품을 통해서나 그 당시의 담론들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전통적 혼례에 반발, 귀국을 미루자 학비를 끊어버리는 사례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만세전」의 이인화는 결국 아내의 희생을 담보로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 유학을 하고 있었고, 또 아내의 희생을 담보로 한 유학비를 일본여성에게 학비를 보태주는 이같은 행위로 역시 가부장적 시혜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21) 권명아는 가족 중심주의가 가족을 옹호하거나 강화하려는 입장이라면, 가족 이데올로기란 가족은 어떠 어떠해야 한다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다(권명아, 앞의 책, p.13).

「삼대」 역시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의한 왜곡된 인간 군상들이 돈으로 인한 갈등과 반목의 대안으로 제시한 ‘산해진’의 바람직한 인간관계 역시 덕기의 돈에 의해서 많은 빛을 지고 있다. 필순이 아버지가 입원했을 때, 일체의 비용은 덕기에게서 나왔고, ‘산해진’관 관련된 문제 해결의 중심에는 덕기의 돈이 놓여있다. 이것은 덕기의 돈과 가문의 전통에서 오는 권위를 일본 통치세력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인화나 덕기는 가부장적 전통에 가장 반발하면서, 가부장적 전통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혜택은 다 차지하는 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덕기가 아버지 조상훈 같은 개화지식인의 윤리적 타락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하면서, 할아버지 조의관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모순과 관련이 있다.

덕기를 통하여 드러나는 염상섭의 작가의식은 가족의 번영과 영광을 위해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전통 가족주의는 반대하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과 희생으로 가족을 돌보는 부르조아의 가족관에는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광수의 자유연애의 근본의식,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한 숭고주의 의식과 동떨어 있는 것이다.²²⁾

염상섭은 핏줄에 연연하는 전통적 가부장적 의식에서는 벗어났으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기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에 철저한 가부장적 의식은 그대로 남아 있다. 「만세전」에서 이인화가 정자를 돌보는 방식이나 「삼대」의 ‘산해진’의 사람들을 돌보는 방식 또한 여기에 맥락이 닿아있다. 이것은 가부장적 시혜의 원리이다.

염상섭이 근대가치라고 하는 개성의 발현과 주체 확립의 문제도 근대의 가장 중요한 핵이라고 하는 자본의 문제와 함께 풀어나가지 않으면, 가부장적 원리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병화가 흥경애와의 관계에

22) 참고, 「1920년대 자유연애와 신여성 배제 메카니즘」, 『현대문학연구』 22집 (2004.6) 참고.

서 보여주는 유희적 태도나, 덕기와의 관계에서 유보적 태도는 결국 병화에게 자본의 힘이 없기 때문이다. 신여성들의 공리주의적인 연애나 물질적인 허영심 역시, 스스로의 자립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돈 있는 자와의 관계에서만, 주체 확립의 문제가 풀리기 때문이다. 이 당시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돈의 문제만 논외로 하고, 주체 확립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그 시대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5. 나가는 말

염상섭이 근대의 가치로 상정한 주체확립의 문제를 그 나라의 역사 발전 과정, 정치 경제적인 총체적인 문제 안에서 해결하지 않는 한, 일본은 근대화된 국가, 일제 하 한국은 열등 국가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그 이분법적 분류 속에서 한국의 현실은 묘지나 무덤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염상섭 작품에서 나타나는 의식의 모순은 첫 번째로 자기동일시와 비동일시의 형태로 나타난다. 작품 곳곳에서 드러나는 나-가족-민족이라는 자기 동일시는 또 한편으로는 근대화된 일본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선망과 부러움으로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열등한 미개한 한국인을 타자로서 위치 지운다.

'근대화된 한국'에 대한 열망과 욕망에 의해서 나타난 개인의 주체 정립과 나-가족-민족이라는 자기 동일시는 개인주의와 가부장적 의식이라는 대립적인 관계임에도 동일선상에서 서술되고 있다. 이는 작품의 주인공들이 의식의 간극을 통해서 나타난다. 작품의 주인공들은 개인의 주체 정립을 위해 만들어진 인물이면서도, 경제적인 의존성을 보여주는 비주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

염상섭의 문학에 드러난 민족주의는 '핏줄'로 연계된 전통적 구습인 가족제도에 의한 인간관계를 타파하고, 돈의 흐름을 사회화함으로써 근대 국가의 기본을 마련하는 부르조아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또 가족의 번영과 영광을 위해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전통 가족주의는 반대하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과 희생으로 가족을 돌보는 부르조아의 가족관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 가족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잘못된 돈의 흐름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돈의 출처를 도외시함으로써 다시 가부장적 원리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염상섭 초기 문학에 나타나는 의식의 모순은 피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 어쩔 수 없는 한계일 것이다. 국가의 핵심적인 모순은 팔호로 하고 주변적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일제 하 지식인의 슬픈 모순이기도 하다.

염상섭이 근대의 가치라고 상정한 개성의 발현에 의한 주체 확립의 문제는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염상섭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삶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일본의 실례들과 일제 하 지식인의 유희적 태도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해결하지 않는 한, 근대화된 일본과 미개지 한국이라는 도식으로밖에 성립되지 않는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염상섭의 근대체험은 자기 자신 혹은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자각에서 오는 것이 아닌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 일제하 한국의 현실을 비판했기 때문이고, 또 염상섭의 근대체험이 자발적인 것이 아닌 피식민지의 열등 지식인으로서 강요된 것이었기 때문에 염상섭 담론에서 나타나는 자기 모순적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영민 편, 『염상섭 문학연구』(민음사, 1987), pp.465~466.
권명아, 『가족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책세상, 2000), pp.59~70.
김병구, 「염상섭 문학의 탈식민성」, 『현대소설연구』 18집(2003.6), pp.191~200.
염상섭, 『염상섭 전집』 1~12권(민음사, 1987).
양문규, 「식민지 자본주의 하 민중 삶의 현실과 운명」, 『한국 근대소설의 현실 인식과 역사』(소명출판, 2002), pp.122~130.
이덕화, 「1920년대 자유연애와 신여성 배제 메카니즘」, 『현대문학연구』 22집(2004.6).
이보영, 『난세의 문학』(예림기획, 2001), pp.59~65.
이옥순,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푸른역사, 2003), pp.40~45.

Abstract

**The Meaning of the Modernity and
the Family in Yum Sang-Sup's Early Works**

Lee, Duk-Hwa

The contradiction of consciousness is revealed in Yum Sang-Seop's writings as identifying himself with modern Japanese intelligent people and disgracing Korean as poor and uncivilized.

Basically this starts from the instinct to see the civilized, modernized Korean society and he is putting 'myself' - 'family' - 'nation' on the same line in his pieces to show the struggle between paternalistic and individualistic ego. Sometimes, his heroes try to find their identities and act like independent men but at the same time, they still lack of economic independence.

The nationalism in Yum's writings insists to prepare the basic frame of a nation by breaking customary family system and by socializing the stream of capital.

Yum opposes to the traditional fatherhood that sacrifices his time and money to build up glory and prosperity for his own family but he seeks for the one that sacrifices himself and spend much time for his family.

The contradiction shown in his early writings is somewhat restricted to the level of people under control. Also the only resolution he could concentrate was wandering from the main issue that needed something to do with his country.

key words : modernity, nationalism, familyhood, individulistic ego.

■ 위 논문은 3월 30일 투고되어, 4월 20일 심사 완료 후, 5월 3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